

## [인터뷰] 가르침에 대한 성찰

### ‘제 2회 서울대학교 교육상’ 수상자 인터뷰 김난도 교수의 ‘관심과 공감의 교육’

\* 서울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학습지원부 연구조교

이번 호 [인터뷰]가르침에 대한 성찰 코너에서는 ‘제2회 서울대학교 교육상’ 수상자인 생활과학대학 소비자동학부 김난도 교수를 인터뷰 하였다.

인터뷰 이선 화\*

#### ● ● ● 김 난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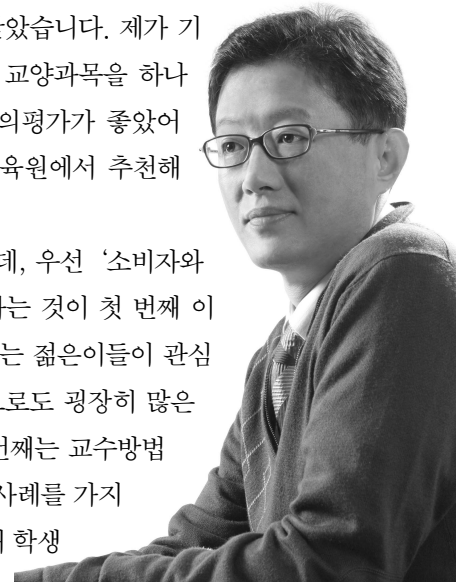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소비자동학부 교수

- 1982. 2.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 1996. 5.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행정박사
-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학과장/학부장 등
- 소비자시민모임, ‘소비자리포트’ 편집위원 및 ‘소비자정책포럼’ 간사(現)
- 1998. 12. 한국정책학회 학술상 수상
- 2006. 10. 서울대학교 교육상 수상

#### 선생님께서 교육상을 받게 되신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기로 서울대학교 교육상 수상을 위한 추천 경로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학생 추천, 단과대학 추천, 그리고 기초교육원 추천, 이렇게 3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수상을 하신 다른 분들의 경우 학생 추천으로 받으신 분들도 있고 단과대학 추천으로 받으신 분들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 저는 기초교육원 추천으로 상을 받았습니다. 제가 기초교육원 소관의 ‘소비자와 시장’이라는 교양과목을 하나 가르치는데 그 과목이 아주 오랫동안 강의평가가 좋았어요. 아마 그 강의평가에 근거해서 기초교육원에서 추천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추천의 이유를 들은 적이 있는데, 우선 ‘소비자와 시장’이라는 과목의 주제 자체가 재미있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였어요. 현대사회에 있어 소비라는 소재는 젊은이들이 관심이 많은 주제이기도 하고 학문적 이론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영역을 건드리는 흥미로운 주제예요. 두 번째는 교수방법과 관련된 부분인데, 저는 다양한 매체와 사례를 가지고 수업 준비를 했어요. 풍부한 자료를 통해 학생



들이 주제를 보다 실감나게 접할 수 있었던 것에 학생들이 공감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세 번째는 인터넷을 수업에 적절히 활용했던 것을 들 수 있어요. 처음 수업을 시작했을 시점에는 e-IL이 없을 텐데, 제 홈페이지 게시판에 학생들과 토론하고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장을 열어놨죠. 핵심교양이 되기 전에는 200명이 수강했고 지금은 100명 정도가 수강을 하는데, 200명이 수강하는 상황에서는 수업 시간에 질문하고 토론하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일방적인 수업이 되기 쉬워서 그걸 보완하려고 홈페이지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어요. 그런 이유 때문에 학생들이 좋게 평가를 해 준 것 같아요.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그것을 수업에 활용한다는 것이 귀찮고 힘든 일인 건 사실인데, 제가 워낙 학생들과 소통하는 것을 좋아하는 편이라 크게 힘든 줄 모르고 즐겁게 했어요. 홈페이지에서는 주로 강의에 대해서 소개하고, 강의와 관련된 질문을 받고, 수업 관련 자료를 공유하는 활동을 하는데요, 활동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학생들이 교수들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통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기억에 남는 은사님이 있으시다면 그 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대학원의 유훈 교수님이 기억에 남습니다. 은퇴하셨는데, 공부하는 태도라든지 삶의 방식, 그런 것을 가까이에서 모시면서 많이 배웠어요. 그 분이 기억에 남습니다. 행정대학원은 학부가 없는 대학원이라 직접적으로 학부 학생을 가르치는 방법을 전수받지는 않았지만, 학문을 하고 학생을 가르치는 기본적인 태도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교육자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구체적인 실례가 있어도 좋고, 그렇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콩나물론’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신봉하는 건데 콩나물 키울 때 밀이 뿔려 있는 체에 콩을 엮고, 딱 주는 건 물 뿐이에요. 그런데 밀이 뿔려 있기 때문에 아마 물의 98% 이상은 땅바닥으로 떨어져 버려요. 콩에서 썩이 돌아나면 이렇게 하루에도 몇 번씩 물을 쥐야 하는데, 밀이 막혀

있으면 물이 쌓이게 되지만 콩나물은 밑이 체로 되어 있어서 물이 다 쏟아져버려요. 그래서 계속 물을 부어도 계속 쏟아져 버리니까 물을 부어나마나 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콩나물이 자라 있어요. 아무 남는 것 없이 다 쏟아져 버리는 것 같은데 콩나물은 자라 있어요. 대학생들을 교육하는 것은 그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내가 물을 부어봤자 바닥에 다 떨어지더라 그러고 물을 안 주면 다 죽죠. 콩나물이 안 자라요. 저는 학생들 상담도 많이 하고 강의도 많이 하지만, 일부 학생들은 나중에 찾아오기도 하고 연락을 하기도 해도, 대다수의 많은 학생들이 언제 저한테 배웠나 싶게 훌쩍 떠나버리고 그러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땅바닥으로 물이 다 흘러버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그 콩나물이 다 말라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생들에게 들인 관심이 다 헛된 관심이 아니었다고 헛된 노력이 아니었다고 믿어요. 계속 관심을 퍼 부으면 확실히 자라요. 그래서 저는 이상적인 교육자는 교육이라는 상황에 대해 허무한 느낌이 들더라도 계속해서 관심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들어 학교가 교육기관이라기보다는 연구기관이라는 분위기가 굉장히 강해졌어요. 물론 그 방향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세계 수준의 대학들과 경쟁을 하려면 연구중심의 대학이 되어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연구실적은 계량적으로 측정이 가능하니까 신경을 쓸 수 있지만 학생지도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좀 문제라고 생각해요. 내가 학생이랑 상담을 몇 건 했다고 하는 것이 어디에 보고되는 것도 아니고 평가에 반영이 되는 것이 아니라서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면 교수가 학생보다 연구에 힘을 쓰는 게 당연한 현실이에요. 그리고 아까도 콩나물 이야기를 했지만, 학생들 상담해 주고 신경 써 줘 봐야 별로 돌아오는 것도 없게 느껴지니까 학생들과의 관계가 소홀해지는 경우가 있죠. 그렇지만 계속해서 학생들에게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같은 경우, 우리 과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학생들이름도 외우고, 또 이름뿐만이 아니라 개인적인 특성이라든지 상황같은 것들도 기억해 주려고 애를 쓰는 편이죠.

기억나는 학생이 한 명 있는데, 자신은 학과 공부를 계속하고 싶어했

지만 학생의 아버지가 학과 공부보다는 고시 공부하기를 굉장히 바라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 학생이 저를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하나고 상담을 했어요. 하고 싶은 걸 하라고 격려했어요. 제가 법과대학을 나왔고 주변에도 고시를 본 사람들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확신을 가지고 하고 싶은 공부를 하라고 격려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의 아버지가 학과장님한테 전화를 하셔서 교수가 왜 그런 식으로 진로 지도를 하냐고 막 항의를 하신 거예요. 저는 그 때 당당하게 학생의 뜻을 지지해줬습니다. 말하자면 제가 그 학생이 꿈을 실현할 수 있게 아버지로부터 지켜준 적이 있는데요, 학생에게 그런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교수예요. 교수가 안 해주니까 학생들이 자기들끼리 그런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돌이켜 보면 대학 1학년이나 4학년이나, 물론 4학년이 1학년보다야 조금 낫기야 낫지만, 사실 피차 어둠 속에서 갈 길을 찾아 헤매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거든요. 그나마 나은 게 교수인데, 교수가 그런 역할을 해주지 못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건 부모도 못하는 거거든요.

**비슷한 맥락에서 교육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어떤 것입니까?**

좀 전에도 언급했듯이 시간을 내서 관심을 주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없으면 관심을 못 주게 되는데, 그러면 차츰 차츰 교육자의 길에서 멀어지게 되고 나중에는 결국 선생이 아니라 강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쁘더라도 시간을 내서 관심을 기울이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교육자가 학생들의 고민에 공감해 줄 수 있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혹독한 입시를 치르고 대학에 진학하기 때문에 중·고등학교 시절의 모든 고민을 대학시절로 유예시킨다고 할 수 있어요. 그 모든 고민들, 진로뿐만이 아니라 육체적인 고민들, 성적인 고민들 이런 것까지 포함하는 것들이 폭발하는 시기가 대학시절이라는 것을 교수들이 이해해줘야 합니다. 흔히 하는 실수

가 ‘아니 서울대학생이 무슨 고민이 있느냐’, ‘너 정도면 많이 가지고 있는 거니까 더 못한 사람들을 보라’ 든지, ‘성인이니까 그 정도는 스스로 다 알아서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안 되지요. 아픈 건 아픈 거거든요. 교수님들이 학생들의 아픔을 이해해주고 공감해줄 필요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관심과 공감이에요. 학생들이 원하는 건 해답이 아니라 자신의 문제에 대한 공감입니다. 공감만 해주면 답은 다 스스로 가지고 있고 찾을 수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수업을 하시는 데 특별히 신경 쓰시는 부분이 있거나 중점을 두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수업의 제일 중요한 기능이 학생들에게 동기부여를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제가 어떤 지식을 잘 조직해서 전달할 수는 있지만 그건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학생들 스스로가 뭔가를 찾아서 할 마음이 들게끔 만드는 거거든요. 제가 강의했던 내용들 중에서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재밌구나, 그럼 이것 더 알려면 어떻게 해야지?’ 하는 마음이 들어서 자발적으로 책을 찾고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수업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양한 이슈를 소개하고 전달하는 게 수업의 일차적인 목표구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방식이 재밌으면 더 좋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수업을 더 재밌게 할지 고민을 합니다.

제가 수업을 재밌게 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다양하고 재미있는 자료를 제시하는 거예요. 자료가 마땅치 않으면 이야기하지 않는 편이 낫다고 생각해요. 소비는 특히 우리 실생활에서 가까이 있기 때문에 신문이나 잡지와 같은 매체에서 쉽게 자료를 찾을 수 있어요. 물론 끊임없이 사례를 업데이트해야 한다는 부담은 있지만, 가능한 실감나고 재미있는 사례를 제시하기 위해 애를 씁니다.

두 번째는 강의를 하는 스타일이 중요합니다. 말하는 거 농담하는 거 이런 것도 학생들이 지루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해

요. 그래서 연구를 많이 하죠. 요즘 학생들이 재미있어 하는 유머 코드는 뭘까, 그런 것에서 뒤쳐지지 않기 위해서 예를 들어 개그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꼭 챙겨서 봐요. 뉴스는 안 봐도 개그 프로그램을 보고 요즘 개그 코드를 익힌다든지 하는 노력을 하고 있어요. 제가 좋은 논문을 써서 많이 인용될 때도 기쁘지만, 한 시간 강의를 해서 학생들이 거기에 반응을 잘 보여주면 그럴 때 또 보람을 느껴요. 학문적인 성취를 이룬 것과 똑같은 보람을 느낄 수 있어요.

### 현재 우리나라 대학교육 상황 중, 학생에 대한 교육 부분에서 가장 개선이 시급한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에서 언급한 학부생의 교육 문제와 더불어 또 한 가지의 문제를 이야기하자면, 지금 서울대학교에 여학생이 40%가 있어요. 그리고 여학생이 많이 몰리는 과들도 있어요. 서울대가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여학생을 찾아보기가 정말 힘든 대학이었거든요. 그러한 분위기나 문화 때문인지 서울대 여학생들은 실력은 많이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는데도, 여성으로서의 자신감이나 정체성 같은 것은 확실히 좀 부족하다고 느껴요. 이게 ‘페미니스트가 되어라’ 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극단적인 여성운동적인 시각으로 어떤 제도를 만들자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대학의 문화가 좀 변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이런 문제는 전적으로 교수책임이거든요. 교수들의 사고방식의 문제예요. 우리 과는 그래도 전통적으로 여자가 많은 과이고 교수님들도 여자교수님들이 많아서서 괜찮은데, 과거에는 여자들이 없다가 최근에 부쩍 여학생이 많아진 학과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여성들이 남성 중심적인 문화에 눌리는 것 같아요. 여성으로서의 자신감, 정체성 같은 게 부족해지는 거죠. 즉 여학생들이 여성으로서의 자신감을 가지기보다는 주눅이 들어 있다거나 여성이라는 것은 핸디캡으로 느끼는 것 같아요. 이건 교수들이 잘못 해서 그런 겁니다. 이런 것을 바로잡는다고 하면 다들 페미니스트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페미니스트적인 시각으로 보자는 것이 아닙니다. 여학생들이 좀더 자신의 당당함을 발휘 수 있는 교육이 가능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